

4차 산업혁명과 교회의 대응

요약 :

기독교는 현실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 앞에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까? 과학기술이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선용보다는 악용되어 왔음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본 연구는 먼저 4차 산업의 낙관적 견해와 비관적 견해를 기술하고,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성 문제, 노동과 인권의 문제 그리고 거둬냄의 문제를 해석하였다. 그리고 4차 산업과 초고속연결사회로 진입할수록 특히 신앙생활의 개인화, 삶의 비인격화, 재생산의 부재 등으로 결국 공동체로서의 교회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관찰하면서 교회의 가족공동체로서 회복을 제안하고자 한다.

I. 서론

제 1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계부품인 '축(spindle)'이 유럽 이외 지역에 보급되는 데 120 년 가까이 걸린 것에 비해, 인터넷이 전 세계에 확산되는 데는 10 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정보통신기술(ICT)융합의 기술로 전개되면서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은 빠르게 다가왔다. 이 혁명은 인공지능, 빅 데이터, 로봇,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무인운송, 나노, 바이오 기술 등 거의 모든 지식 정보 분야를 주도하고 있다.

교회의 역사도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지금까지 흘러왔다. 교회는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면서 동시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반으로 선도해 나가야 한다. 4차 산업시대를 이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계발하고 모범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주체는 교회여야 할 것이다. 먼저 4차 산업에 대한 낙관적 견해와 비관적 견해를 기술하고 4차 산업에 대한 성경적인 사고로 접근하여 교회의 역할을 기술하고자 한다. 앞으로 맞이할 미래는 하나님의 도전과 축복을 내실화하는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II. 4 차 산업혁명의 두 가지 견해

산업혁명을 통해 인류의 생활은 한 단계씩 도약했으며, 경제생활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인간 생활사의 모든 면에서 질적으로 바뀌었다. 예를 들면, 질병의 극복, 소통의 거리를 단축, 새로운 기회의 창출 등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두고 크게 두 가지 견해 즉 낙관적 견해와 비관적 견해이다. 첫째로 낙관적 견해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을 돕기 위해서 발명한 것이기에 인간의 삶이 더욱 윤택해질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제 힘든 일에 몸을 사용하던 것들로부터 해방되어 자아실현과 여가를 활용하게 됨으로써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 보는 견해이다. 둘째 비관적인 견해는 인간이 더욱 소외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적을 것이고 대다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이다. 지금도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듯이, 소유한 자본이 많거나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사람에게는 유리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더욱 도태되어 빈부격차가 심화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4차 산업을 포함한 기술개발은 필연적으로 가치관의 문제와 부딪치게 된다. 여기서 신학적, 윤리적 논쟁이 반드시 싹트면서 특별히 종교와의 긴장은 당연히 대두된다. 더구나

세상에 편리함은 가져다주지만, 과학기술의 부의 편중과 새로운 인간 소외, 빈부격차, 환경 생태오염과 파괴, 자동기술로 인한 실직, 대량학살 무기의 등장, 과거에 없던 크고 작은 다양한 안전사고로 인한 다수의 사망자와 중도 장애자를 발생시킨 점 등 개발의 부산물은 결코 가치중립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4차 산업혁명은 마냥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다.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은 더욱 무한한 가치를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상당한 위협을 느낄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사회에서 직면하게 될 현실 속에서 약자들을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III. 성경의 가치관으로 가야 : 본질 추구(가치 추구)

4차 산업혁명은 지구촌 전체의 사회적 불안성과 불평등 지수가 요동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주장에서 어쩌면 혁신과 파괴와 급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금까지 결코 경험한 적이 없었던 윤리적 문제나 인간 존재 본질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이슈에 정면으로 대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본질 추구의 면에서 세 가지를 기술하였다,

1. 인간의 존엄성 문제(회복과 가치)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계시한다(창 1:28). 또한 인간은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며 세상을 다스릴 청지기의 소명을 받았다(창 1:26-28). 인간은 모든 생명체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다. 인간은 종교적 영성, 창의성, 논리성, 참 지혜와 지식, 공의와 의로움, 거룩과 사랑 등을 포함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임스 버렛은 '인간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초지능의 출현으로 인해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의 멸종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한다. 얼론 머스크는 현재 인류의 존속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바로 인공지능이라면서 '인공지능 연구는 곧 악마를 소환하는 것'이라고 극단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인공지능이 로봇학과 생명공학 기술과 결합하여 기술의 특이점이 도래한다면,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은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초월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영화 '아이로봇'처럼 인간보다 우월한 로봇이 언제까지나 인간에게 복종할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가정은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현재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에 복을 주셔서 번성하라고 하셨다(창 1:22). 사람도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번성이 아니라, 지구상에 모든 생물을 축복하여 번성하게 하셨다. 과학기술은 사람을 편리해졌지만, 지난 100년간 지구상의 자원을 고갈시키며, 생물이 신음하게 되었다(롬 8:22). 피조물과 함께 고통을 겪게 되었으며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롬 8:19).

과학기술로 대변되는 이 산업혁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같이 급격하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식과 인간의 존엄성을 인공지능의 판단에 맡길 수는 없다. 로봇은 도덕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로봇의 도덕성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속도보다 방향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며, 교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등대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시 73:28).

2. 노동의 문제, 인권의 문제

4차 산업은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평등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직업군에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데 2016년 1월 세계 경제포럼(WEF)이 '일자리의 미래(The future of Jobs)' 라는 보고서 내용은 앞으로 전 세계에서 향후 5년 동안 선진 15개국에서 710 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한다. 반면 210 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데 이 기간 중 전체적으로 510만여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빅 데이터 시대에는 수백 명의 인력이 처리하던 정보의 양을 고성능 컴퓨터 한 대가 처리할 수 있다. 즉 컴퓨터 한 대와 이를 다룰 수 있는 인력 한 두명만 있으면 수백 명의 사무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다보스 포럼에서 '건강한 사회의 성장인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승자와 패자, 많이 가진 자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자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이는 양극화 문제로 중산층이 설 자리를 잃어버린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초연결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모든 사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개인의 사생활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전 세계 많은 나라와 개개인이 인터넷 공간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버 테러로 인한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 사람들이 다양한 연결망을 통해 이어져있지만 정작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는 점점 멀어지는 사이가 되어 버린 것이다. 가족과 친구들, 성도들이 모여도 진지하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멀리 있는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있어야 한다. 사람과 사람사이에 누리는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잠 27:17).

4차 산업혁명으로 신기술과 혁신은 폭넓게 확산 중이지만, 지구촌 곳곳은 여전히 과거의 산업혁명이 지속되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세계인구의 17 %는 여전히 제2차 산업혁명조차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이다. 아직도 13억명은 전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며,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도 세계인구의 절반이 넘는 40억명에 달한다. 지구촌 인류는 앞으로 정보와 경제와 문화적 혜택 등에 있어 지금보다 더욱 불평등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 가능성이 크다. 지구촌 전체의 사회적 불안정과 불평등 지수가 요동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교회는 이 같은 세상 속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3. 생명의 문제(거듭남의 문제)

인공지능이 인간의 도구를 넘어서서, 인간에게 명령을 내리는 주인이 된다고 가정할 지라도 이러한 시대에는 인간의 영적 각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인공지능을 선한 도구로 만들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더욱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각성되고 인간성을 찾아야 한다. 인공지능은 성경 원문, 모든 번역본, 모든 사전, 주석과 자료들을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주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달하여 사람들을 영적으로 각성하게 해야 하고, 바른 인간성, 윤리의 태도와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한다.

결국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일정한 정도의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생명의 길로 안내하지는 못한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궁극적 질문인 존재이유와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이 겪는 고통과 죽음을 회피하게 하고 영적 문제

에 대해서는 역효과만 낼 수 있는 피상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난 지능을 탑재 했다하더라도, 시련과 고난을 통해 더욱 풍성해지고 족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는 십자가의 대속하심, 부활의 신비를 깨달을 수 없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를 통한 생명의 길은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교회에 맡겨진 사명임이 분명하다(잠 18:4; 20:5).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자기 지혜로 알지 못하므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깨울 수 있다(고전 1:21)고 한다.

IV. 교회의 대응

4차 산업혁명은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해 줄 수는 있지만, 신앙자체는 대체할 수 없다. 따라서 교회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새로운 환경에 담아서 표현해 내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1.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기독교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 줄 인간소외와 상실감을 어떻게 사랑과 삶 안에서 따뜻하게 회복시킬 것인지 늘 고민해야 한다. 하나의 해결은 과학 활동도 인간 문화 활동의 한 형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수행되어야 한다. 성경은 모든 것의 주인인 주님이며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파하고 그리스도의 주권 하에 복종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임을 분명히 한다(골 3:17; 고후 11:5). 기술개발도 인간 문화 활동의 한 형태로서 예수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문제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문제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기술의 발전을 극단적으로 부정할 필요는 없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되 말씀과 기도로 기록해져야 한다(딤후 4:4,5). 때문에 교회의 사명이 더욱 커지게 된다.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관, 인간관, 삶의 차이를 포함한 모든 것이 영향을 받게 된다.

4차 산업혁명이 교회에 미칠 영향에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주권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릴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야 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본적인 도전을 주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굳게 서 있어야 한다. 세상에 아무리 큰 변화가 일어난다 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아래 있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특별히 과학의 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의 사명을 더욱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다

2. 교회 : 가족공동체의 역할

4차 산업의 특성뿐 만 아니라, 네트워크 시대에서 교회의 신앙생활은 믿기는 하지만 소속되기는 싫어하는, 영성은 추구하지만, 소속을 강요당하길 원하지 않는 교제를 기피하는 신앙생활의 개인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신앙생활의 개인화는 말씀과 기도로 적용하지만, 삶과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관계는 안정되고 조화로운 공동체 생활로 함께 하는 동안 이루어 가야 할 목적도 상실되고 있다. 신앙의 개인주의를 막고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는 “서로 간 교제의 회복”이라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어둠의 나라에서 놀라운 빛 가운데로 불러내셔서 증인 삼은 공동체이다(벧전 2:9). 그러므로 교회는 부름 받은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있을 때 세

상을 향한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 교회의 공동체성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으로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성은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전도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그리고 형제, 자매간의 공동체가 확장되어 가야한다 (고전 1:21).

알파고와 이세돌이 대국을 치르던 마지막 날, 이세돌 9단의 딸이 찾아와 아빠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알파고는 가족이 없다. 비록 승리했지만, 기뻐하고 교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 인공지능은 감정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교회의 역할을 생각하게 한다. 날이 갈수록 가까운 사람과 단절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따뜻함이 있는 공감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오면 승자와 패자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시대에 맞지 않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고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크게 대두될 가능성도 높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교회의 사명이 분명해 진다. 인공지능은 피도 눈물도 없다. 입력된 정보를 정리해서 상황에 맞는 결단을 분명하게 내린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우리 주변에서 활동할 것이다. 하지만 교회는 피와 눈물이 있는 소중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편리함만으로 해결되는가? 모든 것이 효율성으로 해결되는가? 모든 것이 경제적인 가치로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다. 인간에게는 따뜻한 공감이 필요하다. 이제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목회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셨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목회의 자원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따라 가야 한다.

더구나 교회는 4차 산업 특히 초고속연결사회로 진입할수록 특히 신앙생활의 개인화, 삶의 비인격화, 재생산의 부재 등으로 결국 공동체로서의 교회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교회의 “영적 석고화” 현상을 꼽을 수 있다. 교회가 점차 제도화되고 개인화되어 가는 모습에서 벗어나 공동체로서의 모습에 주력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모습은 점점 왜곡되어 갈 것이다. 교회에서 교인들의 교제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의 모습도 사라지고 있다. 따라서 4차 산업에서 교회의 역할로 교회의 가족공동체성을 정립하고, 특히 신앙적 부모-자녀 관계로서 목회적인 관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자가 제기한 교회공동체의 대응으로 4차 산업과 네트워크 시대에서 교회공동체는 신앙생활의 개인화, 삶의 비인격화, 재생산의 부재 등은 별개의 요소가 아니라, 또한 상호 연관성을 지니고 진행할 때 이는 교회공동체의 더욱 큰 상실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는 교회에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교인들의 교제가 사라졌고, 더구나 교회 안에 세속주의와 개인주의가 들어와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라는 의식도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므로 공동체성은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본질적인 요소인 것이다. 이는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상실된 교회공동체가 어떻게 공동체성이 온전하게 회복될 것인가의 제안으로 먼저 교회는 교인들을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가족공동체임을 실현함이 요구된다고 본다.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본 관점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벵크스는 이 점에 관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백성,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그분이 혈육이라고 말씀하셨던) 간의 관계가 지닌 가족적인 특성을 새롭게 강조하셨다”고 말한다(막 3:32-34; 막 10:29-30; 요 19:25-27). 마가복음 3장 31-34절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와 그를 부를 때 보인 반응에서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영적

가족의 개념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였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적 가족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임을 천명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의 모임으로서의 새 가족이다. 여기의 구성원은 서로 형제이며 하나님만이 아버지이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각 교인을 “그들의 식구”로 간주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서로 지체”로 보았으며(롬 12:5; 엡 4:25), 그 결과 서로를 책임졌다(롬 12:13; 고전 12:25-26; 고후 8:12-15).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교회가 가족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교회에 대하여 “몸”의 이미지를 특별히 선호하는데, 이것은 인간 생활에서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길게 볼 때 특히 관계성에서 “몸”의 이미지가 유기적인 통일성에 제한되므로 바울은 인간관계들, 특히 가족관계에 관련한 용어들을 활용하게 된다.

가족공동체의 특성은 관계성, 양육을 받으며 성장, 사랑과 돌봄 등을 둘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따뜻함이 있는 사역”을 보게 된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조반을 준비하여 불을 피워 제자들을 맞이하는 장면은 예수님의 따뜻함을 볼 수 있다. 예수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감싸주는 목회,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공감하는 목회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니게 되겠는가?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들의 친구(눅 12:4)로 나타내시며,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세리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따뜻함을 베푸신다. 예수님을 말고의 귀를 붙여주면서 감동의 리더십을 나타내신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섬세한 배려와 따뜻한 인간미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행복은 거듭남에 있고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음을 나타내어 주신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배려, 존중과 용서는 서로를 행복하게 한다.

3. 새길교회 이야기

연구자는 지난 14년 동안 새길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목회철학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신앙적 부모-자녀 관계를 통한 교회가 가족공동체 정립의 내용들을 기술하고자 한다. 교회에서 사역자들과 교인들의 관계에서 신앙적 부모-자녀 관계를 통한 양육으로 적용하고 이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목회에 적용하여 교회와 가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가족공동체로 정립하였다. 이의 적용으로 소그룹의 운영을 가족공동체로 하여 바울 서신서에 나타난 영적 갓난아이, 영적 어린아이, 영적 청년의 세 과정의 성장과 신앙적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체계화하였다. 또한, 새길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영적성장의 과정별 해석과 평가는 비록 다소 주관적인 면이 있다. 그렇지만, 새길교회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교회의 가족공동체 안에서 영적성장을 적용한 실제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새길교회에서 소그룹에서 적용 결과 사역자(순장)와 교인(순원)을 신앙적 부모-자녀 관계로 한 양육은 결과 좋은 결실들을 얻고 있다. 이는 교회의 가족공동체의 실현으로 형제자매들의 말씀과 기도의 교제, 믿지 않는 자들의 참여와 전도 등으로 소그룹이 배가가 진행되고 있다. 교회의 가족공동체의 실현은 교인들의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의 드림, 자녀들 신앙적 교육, 경건한 삶 등의 성장을 가져오기도 한다. 또한 가족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진정한 영적성장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교회에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오랜 기독교의 세계관 속에 이미 흐르고 있었고, 예수님의 일생과 사역이

바로 그것을 대변하였기 때문이다.

세상은 3.0을 넘어 4.0을 외치고 있는 이 시기에 교회는 여전히 1.0과 2.0 사이를 헤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4차 산업의 기술개발도 공동의 사명을 이루어 가는 운동이 일어나서 새로운 변화와 운동을 꿈꾸어 본다. 그리고 시대는 지금까지 변해왔다. 지금도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예수의 이야기는 시대의 방향이었으며, 시대의 답이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목회하는 것이 소중한 가치가 있다. 교회가 먼저 사명을 발견하고 함께 교회의 본질 중 하나인 하나님의 집(딤후전 3:15), 하나님의 권속(엡 2:19)으로 교회가 가족공동체로서 진정한 변화로 나아가며 실천함이 요구된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온다고 해서 진리가 사라지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도 십자가의 부활은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로 전해 질 것이다. 예수는 여전히 이 시대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 되신다. 시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펴보고 그들과 공감하고 소통한다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 논찬 3

김유준(연세대 신학과 교수, 서울 은진교회 담임목사)

지난 4월 25일에 개봉된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트 워>는 외국영화로 19일 만에 천만 관객을 돌파하는 최단 기록을 세웠다. 이러한 마블 시리즈는 단순한 SF 영화(Science Fiction Film)가 아닌 4차 산업혁명으로 생겨날 미래사회와 최첨단 문명세계를 보여주고 있기에 대중의 열광적인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아이언 맨>의 토니 스타크는 철인 수트를 입고 인공지능 비서 '자비스'의 도움을 받으며 활약하며, <스파이더 맨>의 피터 파커는 특수 수트를 입고 다니며 강철보다 단단한 탄성이 높은 거미줄을 발사하며 자유자재로 날아다닌다.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한 영화 속의 상상에 머물지 않으며 이미 개발되고 있는 첨단 과학의 소재를 활용될 예정이다. 윌리엄 깁슨(William Gibson)이 2003년 12월 4일 이코노미스트(*Economist*)에서 "미래는 이미 여기에 있는데, 단지 고르게 퍼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언급한 것도 그런 의미일 것이다.

2016년 3월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과 열풍이 시작되었다. 이는 최근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를 소재로 한 영화의 흥행과도 무관하지 않다. 인공지능 '스카이넷'이 핵전쟁을 일으켜 인류를 말살시키려는 <터미네이터>, 인공지능 '사만다'와 사랑에 빠진 남자 이야기를 다룬 <허(Her)>, 치매 노인의 친구가 된 로봇의 이야기 <로봇 앤 프랭크>, 인간의 기억마저 인공지능에 의해 입력되고 삭제되는 세상을 묘사한 <매트릭스>, 그리고 아름다운 인공지능 '에이바'가 인간의 동정심으로 유혹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엑스 마키나> 등의 영화는 인공지능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예견하게 한다.

이러한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는 SF영화에서만 아닌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우리의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즉 드론, 스마트 워치, 스마트 카, 인공지능 가전제품 등이 있다. 실제로 아마존(Amazon)에서는 구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쉬'(Dash), 인공지능 비서 역할을 하는 '에코'(Echo)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시민권을 얻은 인공지능 로봇인 '소피아'는 2017년 뉴욕 유엔 본부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패널로 등장해 UN 사무차장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우리의 삶에 급격히 침투해 들어온 인공지능, 빅 데이터, 로봇,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무인운송, 나노, 바이오 기술 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시점에 교회의 대응을 다룬 김정호 교수의 논문은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라 볼 수 있다. 특히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성, 노동과 인권, 그리고 거듭남의 문제를 다루면서 예수님의 사역으로부터 교회의 가족공동체로서의 회복을 제안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회의 올바른 역할과 방향을 제시한 훌륭한 논문이다.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회론'으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되짚어 본 논문이다.

이를 위해 김정호 교수는 먼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자아실현과 여가활용으로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와 함께, 대다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해 빈부격차가 심화

될 것이라는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며 약자들을 배제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정호 교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윤리적 문제와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도전 앞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 가지 차원에서 본질과 가치를 추구해야 함을 제시했다. 첫째, 도덕적 사고를 할 수 없는 인공지능 로봇에게 인간의 존엄성 문제를 맡길 수 없기에 교회의 올바른 방향 제시를 강조했다. 둘째,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과 인권 차원에서 불평등이 심화되며 인터넷 공간의 사이버테러와 인간 소외 문제를 지적하면서 교회를 통해 사람 사이의 친밀감과 행복 추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셋째, 궁극적인 생명의 길로 안내하지 못하며 영적으로 황폐하게 만드는 인공지능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문제에 대한 교회의 사명을 강조했다.

김정호 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하는 인간소외와 상실감에 대한 해결책으로 과학 활동과 기술개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수행되어야 함을 기억하며 청지기로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제시했다. 또한 신앙의 개인화를 막고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서로 간 교제의 회복”을 강조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인공지능과 달리, 이러한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교회가 예수님의 공활히 여기는 마음처럼 따뜻한 공감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김정호 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하는 신앙생활의 개인화, 삶의 비인격화, 재생산의 부재 등의 문제에 대해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 제안으로 가족공동체성 정립을 제시했다. 이러한 가족공동체는 따뜻함이 가득한 예수님의 사역처럼 섬세한 배려와 존중, 그리고 용서와 행복이 넘치는 공감하는 목회를 통해 이루어짐을 강조하면서, 김정호 교수는 새길교회에서 14년간 신앙적 부모-자녀 관계를 통한 영적성장을 적용한 실제적 사례를 제시해 주었다.

결국, 김정호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사라지지 않기에,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시대의 필요 가운데 공감하며 소통함으로 가족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대두되는 인간소외에 대한 교회의 적절한 대안과 통찰력을 제시해 준 김정호 교수의 논문에 필자는 논찬자로서 몇 가지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천만 관객을 동원할 정도로 엄청난 관심과 열풍을 몰고 오는 <어벤져스> 영화처럼, 4차 산업혁명의 과학과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방향과 정당성,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성찰은 물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되짚어주는 중요한 시도임에 분명하다. 특히 포스트휴먼과 트랜스휴먼이 도래하는 시대에 이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이나 미지에 대한 두려움과 무관심 등을 모두 경계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 역사는 세상의 계속되는 도전(challenge)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끊임없는 신앙적 응전(response)으로 역사를 변혁해 왔다. 초대에는 로마제국의 박해와 영지주의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과 이교 사상 앞에서, 중세에는 막강한 황제의 권력과 부패한 교황의 횡포 앞에서, 근대 이후 이성과 과학을 강조하며 이신론과 반(反)삼위일체론을 주장하는 각종 사상 앞에서 교회는 꿋꿋이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지켜왔다.

사실 자연법칙과 과학에 대한 맹신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께 대한 신앙의 자리를 밀어내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이후부터다. 그전까지 수천 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기독교 신

양은 인간의 존재 목적과 참된 의미, 만물의 근원과 진리 등을 제시해 주었다. 지금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 기독교 신앙은 단지 각 시대마다 그 당시의 가치관과 세계관, 즉 과학적 지식에 근거해서 제시되고 설명된 것이지, 결코 분리되거나 배척한 것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 신앙과 과학은 상호보완적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최첨단의 과학문명과 SNS 시대 속에서 인간에 대한 소외도 심화되기에 신앙과 영적 돌봄의 필요성은 더욱더 절실해진다.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장밋빛 미래만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유전자공학과 나노기술,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은 이제 점점 인류에게 가공할 위력과 치명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평화롭고 공의로운 미래사회를 열어가기 위한 교회의 신앙적 대응과 올바른 방향성 제시는 더욱 절실해진다.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 등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급속한 발전과 변화 앞에서 교회의 대응을 결코 멀리서 관망하거나 '신앙적' 차원의 대응에만 머물러서도 안 될 것이다. 즉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한 집중을 강조함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전반에 대한 이해와 논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 4차 산업혁명 전반에 대한 논의와 최근 이슈에 대한 공론화 등을 통해 심도 깊은 이해와 함께 올바른 가치관과 대안마련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처를 개인적 차원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전문가의 특강이나 영화비평과 문화연구, 소그룹 모임을 통한 활발한 토론의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성세대만이 아닌 청년과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차세대교육에 중점을 두어 신앙과 과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균형을 갖추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한 확인뿐만 아니라 철저한 시대인식과 함께 교회의 기능적 차원에서의 실천적 지침 제공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을 소외시키며 비인격화하는 위험성과 경계하면서도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질병과 환경파괴에 대한 해법 모색 등 4차 산업혁명을 선용하면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는 물론, 인류에게 밝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음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